

OECD 개발목표(DevGoals)회의

I. 회의개요

- 2011.1.13 회원국 및 관계강화 5개국 대표가 참석한 OECD개발목표 회의에서 전체 OECD차원에서 추진되는 OECD개발목표를 각료이사회 준비의 틀 안에서 논의한 바, 이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회의명 : OECD 개발목표 작업그룹(DevGoals Working Group) 회의

II. 주요내용

- 공동의장은 금년 5월 개최 예정인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OECD 전체의 개발목표 추구를 위한 정치적 성명서(political statement)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오는 1,21 OECD 개발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공동의장과 사무국은 지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서울 개발컨센서스가 6개 분야(총 9개 분야)에 대해 OECD에 임무를 부여했다고 언급하고 이에 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OECD의 개발목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개발목표 작업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도 MCM을 계기로 ‘개발’을 전체 OECD의 핵심주제 중 하나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OECD의 G20에 대한 기여, OECD내 개발정책의 정합성 제고(PCD 제고), 다양한 개발관련 전문성 활용(개발센터, MENA 등 참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III. 관찰 및 평가

- 50주년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OECD전체차원에서 개발업무의 주류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 역시 개발을 3대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로 정하였음.
- 현재 OECD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목표’ 설정과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 작업은 기존의 원조중심의 패러다임을 종합적인 개발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논의인 바, 이를 우리 정부가 주도한 G20개발의제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 HLF-4프로세스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